

2026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인도자: 각 가정의 대표

목	도		인도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 23:1)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믿음이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함께
찬	송	 예수 우리 왕이여	다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앙고백		 사 도 신 경	다함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 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	도		인도자
말씀봉독		 사무엘하 3장 1절	다함께
		1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중신교회
Joongshin Cell Church



추석을 통해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며,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문의 형편이 달라집니다.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지는 반면,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성해지게 됩니다. 왜 달라지게 된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집안에서 여호와와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삼상 16:14).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에게 똑같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는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면서 자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 존중받는 곳에서 역사하게 되지, 성령님보다 자기를 크게 여기는 자 안에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주 묻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정욕에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이 주어지면 어김없이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지게 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라 사는 곳에는 강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문의 모든 친족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집안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선포: “우리 가문의 왕은 예수님이야!” “우리 가문은 예수님께 순복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